

국내 주식 투자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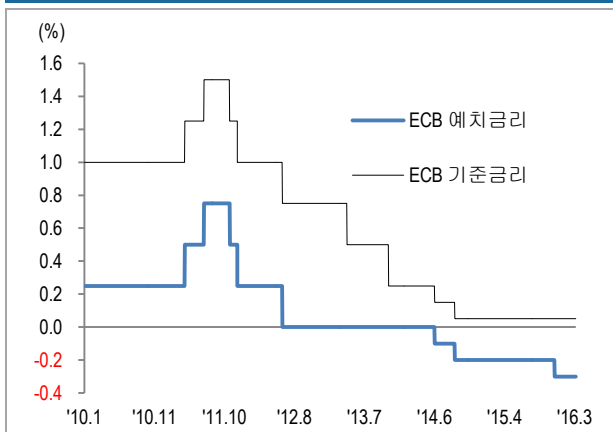
이벤트 전(前)야



ECB를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

-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던 KOSPI가 소폭 강세로 마감했다. 외국인과 기관, 개인 등 모든 투자주체가 순매도를 기록했다지만,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를 이끈 덕분이다.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원화 약세, 거래대금 둔화, 기관 매도세 지속 등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.
- 이는 10일(이하 현지시간) 한국의 금통위,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뿐만 아니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이고, 이를 시작으로 14~15일 BOJ, 15~16일 FOMC 회의 등이 연달아 개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. 현재 ECB 예치금리는 -0.3%이며, 10bp 인하확률이 91.1%(20bp 인하확률 8.9%)라는 점에서 이를 넘어선 금리인하나 자산매입규모 확대 등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실망감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.
- 다만, 시장의 예상경로(-10bp 금리인하)를 넘어선다면 즉각적인 랠리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.

ECB 정책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

시장은 이미 예치금리 인하확률 100% 예상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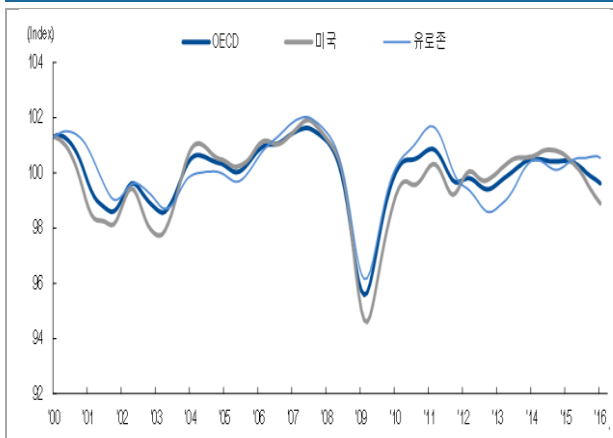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

1월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, 그러나 기대는 남아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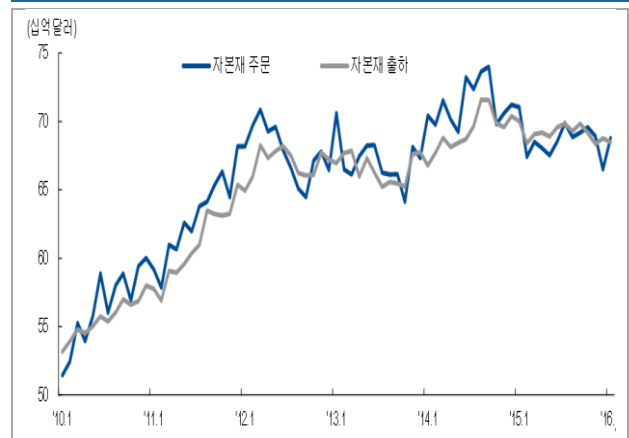
- 한편, 지난 8일 발표된 1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대비 0.1p 하락한 99.6p를 기록해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.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미국(35.4%)과 일본(10.3%) 주식시장(S&P 500, TOPIX 기준)이 1월에 각각 5.1%, 7.4%의 급락세를 나타낸 영향이 컸다.
- 당사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월에도 미국(-0.4%)과 일본(-8.6%)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선행지수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. 다만, 미국의 1월 자본재주문(m-m 3.4%)과 2월 제조업 신규주문(2개월 연속 기준선 상회)을 비롯해 2월 제조업 평균근로시간이 1월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실물 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. 결국 1월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은 선진국 주가 급락의 영향이 크며, 미국 내구재주문이나 PMI 개선, 중국 재정정책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실물경기 개선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(9일자 리서치센터 경제분석 'OECD 선행지수는 왜 빠졌을까?' 참조).
- 결국 미국의 제조업지표가 회복 중인 가운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흥국의 경제지표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. 최근 안도렐리를 이끌었던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, 경기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1월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, 미국 영향이 커



자료: Thomson Reuters,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 실물부문 선행지표는 개선세



자료: Thomson Reuters,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